

Combined Periodontal Regenerative Technigue in Human Intrabony defects

정철화, 김옥수, 정현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치주질환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질환으로 파괴된 치주조직을 재생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치주조직의 재생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골이식술과 조직유도재생술이 있다.

특히 양호하지 못한 큰 결손부에서 조직유도재생술의 임상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로 차폐막 하방에 다양한 골이식 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이와 같은 시술은 Combined Periodontal Regenerative Technigue(CPRT)이라고 칭하고 있다(McClain P. et al. 1999).

CPRT의 rationale에는 1) 결손부내로 차폐막의 collapse를 방지하면서 차폐막을 유지, 2) 재생에 필요한 세포로 채워지는 용적의 감소, 3) coagulum의 안정성 향상, 4) osteogenic progenitor cell의 proliferation을 자극하거나 증진 등이 있다.

CPRT는 다양한 형태의 치주 병변(i.e, 골연하 결손과 치근이개부 결손)의 치료에서 차폐막만을 사용한 GTR에 비하여 더 양호(Schallhorn RG, et al. 1988, McClain PK. et al. 1993, Blumenthal N. et al. 1990, Bowers GM. et al. 1989)하거나 비슷한 결과(Guillemoin M. et al. 1993, Garrett Gouldin AG. et al. 1996, Chen C-C. et al. 1995)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증례에서는 2내지 3벽성의 골연하 결손에서 BioMesh²와 Biocoral²450을 사용하여 Combined Periodontal Regenerative Technigue을 시행하고 6개월 이상의 추적 기간을 거친 후 치주상태를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시술전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